

■ 주요 10개국 스크린 현황(2010년)

(단위: 스크린 수)

국가	스크린 수	디지털 스크린 수	3D 스크린 수	디지털 스크린 수 대비 3D 스크린 수 점유율	전체 스크린 수 대비 3D 스크린 수 점유율
미국	39,547	7,937	7,837	49.7%	19.8%
영국	3,696	1,408	1,095	43.7%	29.6%
프랑스	5,481	1,860	1,476	44.2%	26.9%
독일	4,699	1,248	1,121	47.3%	23.9%
이탈리아	3,217	899	828	47.9%	25.7%
일본	3,412	983	763	43.7%	22.4%
중국	6,200	3,150	1,350	30.0%	21.8%
인도	10,120	279	130	31.8%	1.3%
호주	1,992	452	376	45.4%	18.9%
브라질 ¹⁾	2,238	264	-	-	11.8% ²⁾

※출처: 2011 해외 콘텐츠시장조사(2011) 재구성

- 해외 주요 국가별 스크린 수를 살펴보면 미국이 3만 9,547개, 인도 1만 120개, 중국 6,200개, 프랑스 5,481개, 독일 4,681개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디지털 스크린은 미국이 7,937개, 중국 3,150개, 프랑스 1,860개, 영국 1,408개, 독일 1,248개 순으로 나타남
- 전체 스크린 가운데 3D 스크린의 점유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영국(29.6%)으로 1,095개에 달하며, 프랑스 1,476개(26.9%), 이탈리아 828개(25.7%), 독일 1,121개(23.9%), 일본 763개(22.4%) 등인 반면, 영화산업이 발달되어 있는 인도는 130개(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1) 브라질은 디지털 스크린 수에 3D 스크린이 포함되어 있으며, 3D 스크린 수는 따로 집계하지 않음

2) 3D 포함 디지털 스크린 수 점유율